

통합은 했지만... 安-千 불안한 동거

공천률·당 대표 선출·정체성 등 충돌 가능성

호남 의원 물갈이·야권 연대에도 입장차 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의당(가칭) 통합을 선언했지만 앞길에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합 이후 공천률과 당 대표 선출, 정체성 문제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의원 물갈이 문제를 놓고는 안철수·천정배 의원은 물론 김한길 의원과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남지역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갈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광주·전남 의원들의 국민의

당 대거 합류에 대해 "정치개혁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천정배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금은 각 세력이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창당 이후 공천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 결국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합정당의 대표직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전날 공개 회의석상에서 "당의 CEO(최고경영자)는 결정권한에 맞는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한다"며 사실상 '안철수 대표론'을 제기했으나, 현역 의원들 상당수는 "안철수 사당화(私黨化)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당 전후 당직 인선을 놓고 세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

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도노선을 지향하는 안 의원과 진보 성향인 천 의원 간 정체성 괴리도 당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개혁적 비전', '합리적인 중도·개혁 인사의 참여'로 원칙적인 절충점을 찾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총선 야권 연대를 둘러싼 입장차도 갈등의 불씨다. 안 의원은 "신당 참여시 3자 구도를 각오해야 한다"며 선거공학적인 연대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천 의원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쥐신 안 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 원내대표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히 제한적 부분에서는 연대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논란이 점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당장은 당내 모든 세력이 호남지

역에서의 상승세를 다시 회복하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절박했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특히 현역 의원 물갈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더민주에 남아 있는 현역 의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더민주에 잔류한 호남 의원들은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천 의원의 합류가 자신들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주관을 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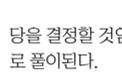
지난해 12월28일 탈당한 최재천 의원도 여전히 합류를 거부하고 있다. 최원식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재천 의원은 통합이 완성되는 시점, 제가 보기에 이만 주나... 그때는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강운태 "총선 출마" 정치 재개

"더민주 복당 고민"



당선되면 만나겠다'고 전하면서 덕담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이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행정·정치 경험을 살려 광주 예산과 대형 프로젝트를 광주에 많이 가져오고, 광주공공체에 빛을 갈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치를 재개하려 한다"며 사실상 4·13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강 전 시장은 "맨 처음 국회의원 시절도 무소속이었고, 국회의원 선거에 3번 출마해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됐지만, 유일하게 기호 2번을 달고 나갈 때는 탄핵돌풍으로 낙선했다"면서 무소속으로서의 저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운장현 현 광주시장을 전략공천하자 탈당해 출마했다고 말해 '저는'무소속 체질'이어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26일 총선을 앞두고 공식적인 정치 재개 선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복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이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행정·정치 경험을 살려 광주 예산과 대형 프로젝트를 광주에 많이 가져오고, 광주공공체에 빛을 갈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치를 재개하려 한다"며 사실상 4·13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강 전 시장은 더민주 복당과 관련, "더민주를 몸담았던 곳이기도 하고, 지난 광주시장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주도한 안철수·김한길 의원이 당을 떠난 만큼 더민주에 안 들어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복당을 고심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과거 인연을 강조하며 "최근 김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강 장관, 총선 나갈 것이냐, 복당해야지'라고 말해 '저는'무소속 체질'이어서

4·13 총선 현장

"정부 보육대란 해결 근본대책 마련해야"

이형석 광주 복구를 예비후보



이형석 광주시 복구를 예비후보는 26일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의회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우리 국회가 응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폭 확대하겠다"

서정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



서정성 광주시 남구 예비후보는 26일 광주시 남구다문화센터에서 열린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설 한마당'에 참석,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남구 다문화 가정과 자녀 수가 각각 643세대와 645명으로, 꾸준히 수가 늘고 있다"면서 "다문화가정과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는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 문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문제로 양육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합의한 것은

도로 마련, 지원 폭을 넓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마련 ▲한글교실 지원확대 ▲이주여성 상담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 차별방지 ▲광주진료소 추가 설치 통한 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종형기자 golee@

다시 멈춰선 여야 협상

여 "쟁점법안 일괄 처리" vs 야 "분리"...29일 본회의 무산

기업활력제고법(이하 원샷법)과 북한 인권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하며 속도를 내던 여야 협상이 다시 멈춰 섰다. 야당은 쟁점 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패키지 처리를 고집하면서 26일 예정됐던 원내 지도부 협상이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선거구 획정이 다시 포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의 전화 협의를 통해 지난 회동에서 양측이 의견을 내기로 한 사항들을 우선 서면으로 교환해 검토한 이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야당 측은 원샷법 북한인권법 등 합의가 가능한 법안부터 우선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선거법 관련 그간 여야가 합의된 253석+47석 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광역시도별 의석수 등도 함께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일괄처리 해야 한다는 '인질정치'를 하고 있다"며 "우리당이 이번엔 연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파견법을 굳이 선거법에 연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연계해 패키지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하루 속히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우리 국회가 응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는 선거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이 없을 경우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 본회의도 파행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동욱기자 tuim@

당정, 청년 열정페이 근절대책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젊은이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문제인 '열정페이' 문제와 관련,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

을 가르친다는 것을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文 "이제 물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제영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날 입당한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과 퇴장하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오늘 제가 이 영입을 발표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인사를 드립니다"는 발언을 했다. 문 대표는 총선선대위를 출범하며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전권을 넘기고 인재영입은 김상근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어 수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